

대구경북 영웅담

태왕, 봉덕동 6단지 조합원에게 천추의恨 안겼다...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일동... 태왕 상대로 대구지법 68명서명 탄원서 제출 조합측, 강경태세 돌입

탄원서 내용 12면

(주)태왕이앤씨가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임원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단행했다. 정비사업의 동반자인 조합과 평범한 토지소유자인 조합 임원을 상대로 치료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기며 천추의恨을 심어주고 있다. (주)태왕의 터무니없는 가압류 조치로 정비사업이 잘되지만 학수고대하며 임원으로 참여한 선량한 조합원은 그 충격의 여파로 지병이 재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불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일동이 지난 9일 (주)태왕이앤씨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낸 탄원서 내용이다. 68명이 서명 날인한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에는 건물 임대료에 의존, 생

계를 꾸러가고 있는 또 다른 소유자는 그 수입이 단절돼 생계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임시입류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불가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 등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시달려 도저히 말짱한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지옥 속에 죽음을 실감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구지역의 유력한 주택건설업체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태왕은 평범한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아무 죄없이 태왕이라는 그 회사만을 믿고 아파트 잘 지어달라고 토지를 내줬다. 각종 동의서를 조건없이 협조해준 이웃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현실팩 차버리듯 배신했다. 공사를 진행하면 손해가 볼 것이 뻔하고 분양이 안돼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게 될까 봐 갖은 이유를 짜내고 짜맞추어 조합과 이웃주민을 파멸시키려는 태왕의 숨겨진 술책에 조합원 모두는 분개하고 치를 떨며 분노한다. 이들은 대구지방법원에 태왕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우기 위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자행한 무도한 행태에 있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탄원의 글을 올렸다. 조합원측은 태왕의 이같은 횡포를 알리는 내용을 조만간 대구시와 시민단체등에 성명서를 내고 강경태세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김성용 기자



코로나 19 또 창궐 무섭다... 코로나가 또 창궐할까 두렵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산시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동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입구에는 원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붙였다.

침체의 늪 동성로... 부활 신호탄 쏘다

대구 첫 관광특구 지정 각종 국비 사업 지원... 호텔 카지노 영업 가능 5성급 호텔 유치 추진

더해 5성급 호텔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동성로가 차별화된 전략과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하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동성로28아트스퀘어에서 대구의 첫 관광특구인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기념 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류규하 중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관광특구 상징물 제작식과 경과보고 및 지정패 전달 등의 기념식을 비롯, 흥 시장의 '토크버스킹', 청년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을 펼쳤다. 관광특구 상징물은 CGV 대구한일 앞에 설치됐다. 기념식에는 관광특구 지정권자인 대구 시장이 중구청장에게 지정패를 전달하고 시민 축하 영상을 소개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토크버스킹'에서는 흥 시장이 동성로를 찾은 시민 및 동성로 상인들과 함께 동성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대구시의 지정 방향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황태용 기자



대구 최대 변화가 1번지 동성로가 다시 살아난다. 그동안 동성로는 대표 상권으로 불리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상권 다변화 등으로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젊음 소령의 거리 동성로가 대구 첫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반전을 꿈꾸고 있다. 관광특구에는 각종 국비 사업이 지원되고, 호텔 카지노 영업도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대구시 경북도 정면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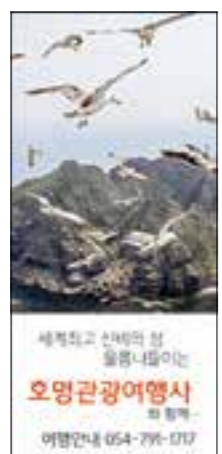
홍준표, "TK 행정통합 8월 합의안 만나오면 장기과제로" 최후통첩

관련기사 2·3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공개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면충돌했다. 행정통합은 2026년 인구 500만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이 청사 위치 문제로 남양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제시한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3개의 청사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알려졌다. 경북도는 즉각 반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제목으로 완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특별시

를 비수도권 거점 경제 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 및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문제는 해당 법에 규정된 청사의 위치다.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총 3개인데 대구청사는 대구, 경북청사는 안동, 동부청사는 포항에 두도록 했다. 대구청사는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경산·청도·영천·고령·성주·칠곡·의성·상주·구미·김천·청송), 경북청사는 7개 시군(안동·예천·문경·영양·영주·봉화·울진), 동부는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릉)을 관할 구역으로 정했다. 대구시가 정한 이 기준으로는 대구·경북 인구 491만명 중 대구청사 관할 인구가 366만명에 달한다. 사실상 경북이 대구에 흡수 통합되는 모양새다. 대구청사는 행정·경제부시장을 1명씩 두는 반면 경북청사에는 행정부시장 1명

만 배치하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방안에 경북도의회가 성토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대구시가 사실상 경북도를 허부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경북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통합인데 이런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최후 통첩성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흥 시장은 이날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 시간이 없고 국회(통합특별법안) 통과도 보장되지 어렵다"며 "비생각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조여은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19일 오후 스마트어돔에서 열리는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시상식에 나선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9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8월 모범선행군인 표창수여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Advertisement for Daegu investment. Text: '기업하기 좋은 대구 투자하기 좋은 대구'. '대한민국 미래산업 투자 1번지'. '이유있는 대한민국 미래산업 투자 1번지, 대구'. Includes icons for New Industry, AI, Robotics, and other sectors. Contact info: 대구광역시 투자유치과 T. 053-803-6200~6203

이철우, 행정통합... 시·군 권한 축소 절대 안돼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공개 법률안 총 6편 272개 조문 구성 이철우, 광역 간 행정통합 시·군 권한 '축소'는 절대 안된다 강조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려 있는 이유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분절된 광역시와 광역도의 경계를 허물어 뭉집을 키우는것도 한몫 한다.

때문에 이 지사는 "커진 만큼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 경쟁적으로 찍어낸 듯한 봉어빵 정책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대구경북행정통합 최대 핵심은 지역이 주인공이 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방자치의 혁신이다.

이 지사는 "준연방제처럼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방에 거대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저출생 극복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의미"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인구 500만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만든다는 의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산 넘어 산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갈지자 걸음을 하고 있다.

때문에 핵심 쟁점들의 해결이 최종 관문이다. 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두 지자체는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최대한 담고자 했다.

8월 현재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 경북 통합에 시장·도지사직 걸려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 경북 통합이 부결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직을 걸라고 주장했다.

행정통합은 500만 시도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다.

박 의장은 "지방소멸 등의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 경북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경북도의회의 일관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31일 대구에서 열린 한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정책 토론회에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통합에 대해 반발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다"면서 "간절함, 애تمام, 진실함이 동반된다며 시·도지사직을 걸라고 하겠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행정통합이 부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북 북부지역 안동과 예천군의회는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구와 경북은 2년 안에 행정통합을 한다는 계획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행안부장관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4명이 모인 '4자회담'이 열렸고, 지난주에는 행안부 관계자들이 대구 경북 실무진을 만나 통합 관련 추진을 논의했다.

경북도 특별법안 중점 방향

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총매진한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낸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률안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부산·경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의 광역자치체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물꼬를 트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재정적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 한다.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통합된 행정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군의 자치권 강화

시·군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한다.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

경북도의 확고한 원칙은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것이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분야별 주요내용

도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한다.

발전전략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북도 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



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 있다.

통합청사 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법률안의 내용이다.

도는 대구시와 의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조직, 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도는 소방본부의 규모는 물론 그 관할 면적과 대형 재난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이전부터 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이었다.

대구시는 올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43년 만에 직급 상향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재가와 선포가 이뤄진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입법 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 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자치분권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이양 대상에 포함된다.

중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예산, 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다.

특별시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자치재정...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재정 분야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이

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교부세의 지원 방식을 특별시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현행 수준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분야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

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진다.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합도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은 지역별 안분 비중 치에 근거해 수도권, 시·도에 배분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보다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되었던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하기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박성만, 행정통합 부결... 대구시장 경북지사직 걸어라



행정통합 500만 시도민 백년지대계 지방소멸 등의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 경북 더이상 허비할 시간없어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농림·산림·해양.. 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한다.

도는 산림면적이 1333ha에 이르며, 산림율이 70.07%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다. 산지전용에 대한 지역 자율성을 강화, 지역 사회가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도가 구상하는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개발 및 관광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농업성장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진다.

지난달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마트농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총 17개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특례 적용도 가능해졌다.

청년 임대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횡수 제한 없이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해지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농업진흥지역 3ha 이상, 진흥지역 밖 30ha) 이상의 농지 전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나 협의를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농지전용 검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특례를 통해 농지전용 허가, 신고, 허가 취소 등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

재정 보장, 재정 자율성 강화
현 수준 이상 재정규모 보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 이양
조세의 자율성 강화
11개 지방세목의 세율 조정 권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감면액 가감 권한
추가 재원 확보
대구경북통합복합권 발행, 광역통합교부금

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 받게 된다.

한동해 수산·해양 자원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산업..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 유치 특례 부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된다.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구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이 특별시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행 최대 현금 지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

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R&D.. 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법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안동바이오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포함해, 웹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규제 특례까지 부여했다.

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군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한다.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안전권 이양 특례도 포함됐다.

▲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은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안·소득·관·취득·등록면허·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준다.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다.

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배분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이양된다.

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한다.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든다. 중앙부처가 보유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 지역 맞춤형 국가산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역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의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한다.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춘다.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한다.

신공항과 연계된 UAM(도심 항공 교통), BRT(간선급행버스), 순환 트램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북부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구 10만의 스마트 도시로 성장시킨다.

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특별시장이 주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하천 준설 등 지역 맞춤형 환경 관리와 개발 사업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 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의대·사대 제외),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용 현재의 광역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특정 전공 분야에서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한다.

해당 분야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 산업의 성장과 함께 대학의 특성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 지역 내 인재 양성고 고용 창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

글로벌 문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컬처시티'와 같은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K-문화대학원 등 문화산업 기반 AI영산산업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문화인프라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산업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지역 관광 진흥 개발 기금을 조성, 지역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야간시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야경 등 콘텐츠를 보유한 야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야간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지역현안... 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도가 특별법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인다.

전기사업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혀 활용될 수 없었던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울릉군을 세계적인 경제·관광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용 기자

대구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4



달성군, 풍년을 알리는 첫 벼 수확

달성군 다사읍 황금 들녘에서 지난 17일 올해 첫 벼수확이 시작돼 가을을 알렸다. 다사읍 문양리의 이상태(57) 씨는 16ha 면적에서 100톤가량을 수확할 전망이다. 수확한 벼는 프리미엄 브랜드 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달성군의 알맞은 기후와 농업인들의 정성 어린 관리 덕분에 어느 해보다 실하게 영근 벼는 쌀 품위나 품질면에서 뛰어나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벼 생육 기간 철저한 병해충 관리로 안전미 비율이 높고, 일조량이 충분하여 쌀알이 고르게 여물었다는 평가다.

첫 수확에 나선 농업인들은 "풍성한 가을 소식을 알려 지역사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모든 연령 활력 넘치는 체육사업 선도

권역별 체육시설은 물론, 어린이 위한 놀이시설도 다양 선도적인 파크골프 사업으로 중노년 일상도 '활력 찾는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격언이 있을 만큼 일상 속 체육활동은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군은 일찍이 체육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민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체육시설과 함께 활력 넘치는 달성군의 일상을 살펴본다.

■ 권역별 체육시설 다양... 가까운 곳에서 운동 즐겨요

달성군은 넓은 권역을 고려해 지역 곳곳에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새롭게 문을 연 곳이 유가읍 상리의 달성테크노스포츠허브다.

달성군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 여기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시설을 건립했다.

올해 1월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연면적 507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실내 어린이 놀이터(네버랜드), 건강·문화강의실 등 아이와 어른이 함께 머무는 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월평균 35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해 현재까지 2만4600여 명이 센터를 찾는 등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다시 읍에는 군민들이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달성문화센터가 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수영장 타일 전체 교체, 방수 공사, 탈의실·샤



워장 내부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든 것은 물론 안전성도 강화했다.

화원읍의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역시 주민 안전과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수영장 동성능개선공사 중이다.

사위실과 탈의실의 바닥과 벽면을 정비하고, 환기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한다. 오는 11월 재개관 후 달라진 환경에서 체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달성 국민체육센터 등이 지역민들의 여가 활동 및 체육행사의 든든한 장이 되고 있다.

또 예약 등을 통해 가정체육공원, 구지축구장 같은 야외 체육시설에서 동호회 경기를 비롯한 자유로운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 꿈나무들 맘껏 뛰놀며 자라도록... 여름 물

놀이도 가까운 곳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군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적지 않다.

올해 초에는 달성테크노스포츠허브와 함께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네버랜드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783㎡ 면적에 트램펄린, 정글짐, ICT(정보통신 기술) 콘텐츠 등 19개의 다양한 즐길거리로 시설을 구성,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시중 어린이 놀이시설보다 이용 가격이 저렴한 데다 군민을 위한 할인 혜택까지 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초에서 8월 말까지 공공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유아 이상리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구지면 응암리 국가산단2호근린공원 △논공읍 북리

달성군민운동장 등 총 세 곳이다. 특히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장은 일평균 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물놀이장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전문 기관을 통한 정기 수질검사도 시행해 더욱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가족 단위 주민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햇빛텐트 등 편의시설도 함께 제공한다. 단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모든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 중노년층 여가·건강 책임지는 파크골프, 달성군이 선도

파크골프는 골프의 재미는 살리고 규모와 장

비 등은 간소화한 종목으로, 중노년층에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

필드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도 파크골프가 대중화 된 이유다.

달성군은 이 같은 인기로 주목해 지역 부지 곳곳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의 파크골프장은 총 8곳(180홀)이다. 2024년 기준 대구시 구·군 중 최다 구장 및 최다 홀수를 자랑한다. 270여 개 클럽에 연간 이용 인원 역시 46만 2천여 명에 이른다.

달성군은 여기에 7곳의 파크골프장(153홀) 확장·추가 개설 용역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면 파크골프장 총 14곳(333홀)을 갖춰 전국적으로도 큰 규모의 시설이 탄생한다.

파크골프장의 시설 수준 역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논공 워터 파크골프장은 올해 초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인증구장 승인을 받았다.

대구시에서는 2번째로 이뤄진 공인인증구장 승인이다.

같은 시기 이곳에서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도 했다.

2025년에는 추가로 36홀을 조성, 총 72홀로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많은 홀을 갖춘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난다.

다시 세천 파크골프장 역시 공인인증구장 승인을 위한 현장실사 및 보완사항 정비를 하고 있다. 인증이 이뤄질 시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2개의 공인구장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들의 여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시설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 중이다"라며 "달성군의 체육 사업을 백분 활용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뚜비, 서울시 해치의 초대로 '서울달' 탑승

'뚜비'가 '서울달(SEOULDAL)'에 탔다



수성구 캐릭터 '뚜비'가 서울시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서울달'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달'은 최대 130m 상공에서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서울의 전망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계류식 비행장이다.

이 행사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다른 캐릭터들을 특별 초대해 성사됐다.

경기도 '봉공이', 김포시 '포미', 수성구 '뚜비' 등 지자체 캐릭터뿐 아니라 민간 캐릭터인 롯데월드 로티, 현대백화점 힌디, 누누씨, 부라봉도 참여했다.

지난 13일 한자리에 모인 8개 캐릭터는 탑승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서울달에 탑승해 한강과 서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비행을 체험했다.

서울달은 오는 2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며 여의도공원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된다. 조미경 기자

아이군위 추석맞이 이벤트 실시

군위군 대표 농산물 쇼핑물 '아이군위'가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맞이 이벤트는 8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모든 상품을 최소 10%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복숭아, 쌀, 한과, 한우, 돼지고기, 대추집, 우리밀, 꿀, 된장 등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아이군위의 우수한 농·특산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추석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동구 동촌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동구 동촌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바리스타 편 '이색 저색 꿈길 걷기'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바리스타 직업에 관심이 있는 관내 초·중학생 8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은 바리스타 직업 소개와 이론 교육, 커피 머신을

활용한 음료 제조법, 카페 운영실습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날 청소년들이 일일 바리스타가 되어 직접 카페를 운영하는 '리틀빈 동촌'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해정 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동성로 관광특구, 쇼핑 거리, 젊음의 거리로 조성

동성로 찾은 시민, 청년·상인 등 300여 명과 토크 버스킹 진행

동성로 명품의 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

대구시는 지난 16일 동성로에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기념행사와 대구시장과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과의 토크 버스킹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버스킹은 동성로를 다시 대구의 중심, 젊음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시의 역점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청신호가 될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대구시장이 시민, 청년, 동성로 상인 등 300여 명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대구혁신을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성로는 우선 쇼핑의 거리로서 스페인 광장처럼 관광객이 먼저 찾고 싶은 명품 거리로 조성되어야 하며, 가게에 문이

없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밤새도록 공연이 펼쳐지는 젊음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성로 명성 회복을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공실을 없애야 하며,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혁신으로 동성로 상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우나 동성로에 공연과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구는 한반도 2대 도시였으나, 지금은 부산, 인천에 밀려났다. 통합이 될 경우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구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지분처'를 언급하며 청사배치 문제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문제해결로는 폐쇄성 극복과 산업재배치를 언급했다. 인제 채용 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개혁적인 개방을 진행하고, 민선 8기에는 전통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개편해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2년의 재임 기간 중 시

행한 대구혁신 100+1 모든 사업에 애착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토크 버스킹은 동성로를 찾은 시민과 상인들이 묻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구시와 동성로에 관한 현안뿐 아니라 '인생의 터닝포인트', '피부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법'과 같은 개인적인 질문에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으로 참석한 시민들과 유쾌한 웃음을 나누고 큰 박수를 받았다.

버스킹을 마친 후 류규하 중구청장은 "홍준표 시장님의 버스킹을 통해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삶,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구의 상징적인 거리인 동성로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심장이자 젊음의 성지인 동성로의 부흥을 위해 중구와 함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구시민들도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동구청, 치매안전망 구축 앞장서

동구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치매안심마을인 신암1동, 동촌동, 안심1동, 공산동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치매 돌봄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 치매관리사업 안내 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치매예방의 중요

성에 대해 알리고 치매 조기검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동구보건소는 치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 돌봄역량 교육과 함께 경로당 연계 치매예방교실, 동별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등 치매관리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적인 치매관리사업 추진으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사회 교육

대구광역시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5



경운대, 세계작업치료사연맹 국제교육 7년 인증

경운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세계작업치료사 연맹 2주기 국제교육 7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은 1952년 설립된 세계보건기구(WHO) 가입 기구다.

73개국 35만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등 세계 작업치료사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다. 각 국가의 고유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한 작업치료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경운대 작업치료학과는 2017년 국내 12번째 WFOT 교육인증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진행된 2주기 교육인증 평가에서 WFOT가 제시하는 작업치료 프로그램 총 교과과정 이수시간 2500시간 이상(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송명주 기자

의료 공백 옆친데 코로나 덮쳐... 속수무책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응급·중환자 치료 역량이 더 떨어져 환자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질병관리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공백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에선 응급실 환자 수용과 중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입원 또는 응급실 내원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7월 3주차에 226명에서 4주 만에 1357명으로 6배 증가했다.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 수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1627명으로 5.2배 가량 늘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인력 부족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환자 수용 역량 감소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초진부터 전원 환자 처치, 다른 진료과 인계, 이송 상담, 심폐소생술(CPR) 같은 응급조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적정한 인원이 교대 근무해야 한다. 또 '의료 최전선'으로 응급의학과와 1차적인 검사나 응급 처치에 이어 배후 진료과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 가능하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사직을 앞둔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는 "사태 장기화로 배후 진료과의 역량이 대폭 감소되긴 했지만,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들의 조용한 사직·휴직 행렬로 업무가 가중된 남은 교수들이 배후 진료과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환자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진짜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가 줄면서 수용 가능한 환자 수도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환자들은 대학병원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중증 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 2월20일부터 8월2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13일간 빅5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1만2907명 중 중증 환자는 16.1%에 불과했다. 중증증 환자는 61.3%, 경증 환자는 22.6%다.

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분산돼 수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입원 치료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입 환자 등 중증·희귀질환 환자들도 입원이 어려워 외래에서 함양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B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고열 환자와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부쩍 늘었다"면서 "고령 환자 중 상태가 촉촉해지거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수도권 광역상황실'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전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의 전원 요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수는 "부산·경남 지역은 이전에도 전원 요청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로 전원 요청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응급실 환자 수용 역량이 급감한 요인으로는 번아웃(탈진)으로 현장을 떠나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늘고 있는 것도 주요인이다.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교수들의 대부분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인 데다 사태 장기화로 1인당 업무량이 급격히 늘면서 연

쇄 사직이 일어나고 있다.

의대가 아닌 병원에만 소속돼 있어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임의, 임상강사, 임상교수, 객원교수 등의 사직 또는 휴직까지 고려하면 이탈한 전문의 수는 더 많다. 결국 피해는 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A 교수는 "응급실에 중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환자를 더 수용했다간 당직을 서는 같은 과교수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다 보니 배후과 진료가 가능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요즘 더 자주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수들의 사직 행렬로 그 빈도는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중증 환자들이 위험해 처할 가능성

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러 "실제 사태 이후 대학병원의 경우 응급실 입구에서 시행하는 중증도분류(KTAS)를 통해 증상과 중증도 분류, 환자의 바이탈 사인고 연령, 기저질환 등을 확인한 후 입구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일반 종합병원 응급실로 안내했던 경우가 수용한 건수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면서 "이로 인해 일반 종합병원 응급실은 북새통을 이루게 됐다"고 했다.

응급실은 곳곳에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최근 순천향대전안병원, 단국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외에도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 정상적인 응급실 기능이 중단된 채 운영되는 대학병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교수 등의 연쇄 사직 또는 휴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A 교수는 "예를 들면 '밤 12시 이후 응급실 운영 중단, 단 CPR 환자는 수용, '내일 아침까지 심정지환자, 심폐소생술(CPR), 흉통, 호흡곤란 환자 수용 불가' 등 다양하다"면서 "여러 진료 과목을 고루 갖춘 중증환자병원이 받쳐주고 있어 드러나지 않을 뿐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건강 악화로 이탈 사직하면 해당 대학병원도 응급의학과 교수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어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A 교수는 "올해 추석연휴 진짜 지역이 펼쳐질 것"이라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나서 내년에는 신규 의사(인턴)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향후 최소 2-3년은 이대로 버텨야 되는데 과연 남은 인력이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사 양성 시스템은 전공의 과정인 인턴(1년)-레지던트(3-4년)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인턴 부족이 향후 레지던트, 전문의 부족으로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공의 지원율 1.8%에 80%가 '수도권' ... "비상"

필수 의료 분야 비수도권 지원자 단 1명 인턴 지원자도 수도권 출림 현상이 이어져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8%(91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원자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로 한정하면 비수도권 지원자는 1명에 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용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등록된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했다.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로 좁혀보

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가 경상권역(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단 1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충청권역(충북·충남·대전·세종) 및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경상권역도 내과 지원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수 의료 분야 지원자는 없었다.

또 전공의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턴 지원자도 수도권 출림 현상이 이어졌다.

전체 인턴 지원자 13명 중 충청권역 지원자는 1명, 경상권역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의료 인프리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신규 인턴, 전공의가 전무하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고1, 수능은 2026년 11월19일...마지막 '통합형'

국어·수학 영역 공통과목 선택과목 1개(25%) 선택 방식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2026년 11월19일 치러진다. 국어·수학 영역에 선택과목이 있는 현행 '통합형' 체제 마지막 시험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시험 영역 등 주요 내용을 15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202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된 '통합형 수능' 체제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전체 문항 수 75%)을 풀 뒤 선택과목 1개(25%)를 택해 응시하는 방식이다.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은 '수학 I·II'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택해야 한다. 전체 문항 30개 중 30%인 9개는 단답형, 나머지는 5지선다형이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총 17개 과목 중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치를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다.

2개 과목을 응시할 경우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선택과목 5개 중 1과목을 치르면 된다. 1개 과목만 응시할 때는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택하면 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두가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이의 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택해 치를 수 있다.

2027학년도 수능 성적표는 2026년 12월11일 통지한다. 영·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성적표에 등급만 표시한다. 예컨대 영어에서는 원점수 90점 이상은 1등급을 얻는 식이다.

다른 영역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백분위·

등급이 모두 성적표에 나온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시험 결과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그 정도에 따라 1년 뒤인 2028학년도 수능 시험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다만 중요령(벌)이 울린 뒤 답안을 쓰는 등 교육부가 정한 '경미한' 행위는 당해 시험 결과만 무효로 한다.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26년 3월31일 이전에 보다 구체적인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4년 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12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개편에 따라 새로운 수능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하는 방식으로 시험 체계가 바뀔 예정이다.

최저임금 부담돼 직원 줄인 사업체, 5년 새 34%→10%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내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였다고 밝힌 사업체가 지난 5년 새 전체 34%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전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의뢰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쓴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까지 3주 동안 사업체 3070곳과 근로자 558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이같이 지난 6월 최임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실태조사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임금 실태 분석과 함께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에 쓰이는 기초자료지만 공개는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8월께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는 사업체 비율은 2019년 34.2%에서 감소해

지난해 9.7%까지 하락했다. 같은 질문에 '변동 없다'고 답한 사업체는 지난해 79.9%로 2019년(54.9%)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이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순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용이 늘거나(5.15%) 줄었다(5.24%)는 사업체는 각각 5% 수준을 보였다.

정부, 전국 초교 6300곳 주변 위험요소 점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통안전 등 5개 분야

행정안전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교통안전의 경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점검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의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

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의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 시설과 기구의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 수칙과 상태를 점검해 유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김주수, 행정 최고... 4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3년연속 선정
2024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최다선정 쾌거
2회 추경예산안 8610억 편성 행정력 모아
더워달리는 2024 의성썸머뮤직페스타 개최



의성군의 행정이 연일 돌린 흐름을치고있다.
4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를 차지, 의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3년연속 선정, 2024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최다선정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군은 추경예산안을 대폭 늘려 행정력을 모은다.
한 여름밤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
2024 의성썸머뮤직페스타이다.

군은 오는 31일 오후 6시, 안계위전변 특설무대에서 국내 탑 가수들이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2024 의성썸머뮤직페스타'를 개최한다.

행사는 의성 동·서부지역 문화불균형 해소 및 국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카스텐, 거미, 케이윌, 장혜진, DK(디셈버), 이브, 로키드 등 총 7팀이 출연, 관광객들에게 강렬하고 짜릿한 락밴드의 음악과 서정적이고 감동적인 정통 보컬리스트의 음악을 동시에 선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썸머뮤직페스타가 울여름 무더위도 시원하게 날려 줄 것"이라며 "더 큰 감동을 선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 8610억 편성

의성군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8610억원으로 편성해 군의



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 대비 10.9%(850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제2회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제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확보했다.

군은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불확실성을 고려, 연내 집행이 시급한 필수사업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거주환경개선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의 생활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의성군 스마트도시 솔루션확산 사업 25억원 △다인 매립 시설 설치사업 21억원, 조성지 관광벨트화 18억원 등이 포함됐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사업 36억 △수해복구사업 30억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및 긴급방제 8억 △긴급과수생해방제비 4억원도 반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군민 생활안전과 거주환경 수준을 개선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성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4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업

의성군이 오는 23~2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한다.

박람회장에서 뛰어난 품질의 농·특산물과 다채로운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4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를 차지한 의성군만의 품격 높은 브랜드 가치를 제시한다.

전국 1위 생산량을 자랑하는 한지마늘과 함께 쌀, 복숭아, 자두, 사과, 가지, 흑마늘 등 다양한 친환경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성 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무기질 풍부한 토질 등 농업에 최적화된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우월한 농업 기반 위에서 생산된 뛰어난 품질의 농·특산물은 공동브랜드 '의성 진(眞)'을 앞세워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역 농·특산물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의성군 농특산물쇼핑몰인 '의성장날'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온라인 유통채널인 '의성장날'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전국 최초·최대 반려동물테마파크인 '의성펫월드'를 통해 관광 의성의 면모도 과시한다.

지난해 2만3000명이 찾은 의성펫월드는 4만385㎡ 규모의 대규모 터에 펫카페와 애견놀이터, 캠핑장, 도그풀장, 실내도그런장, 놀이터, 수변데크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의성군이 자랑하는 의성 진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역점 시책과 관광 자원 홍보도 병행해 관광객에게 의성군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3년연속 선정

의성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4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치매 돌봄서비스 활성화 및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중앙치매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고, 치매안심마을이 경북광역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보듬마을과 연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치매 환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운다.

앞서 2022년에는 인지 개선 프로그램인 '행복한 동행' 기억보듬학교를 치매보듬마을 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치매 관리에 대한 군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AI 돌봄 로봇, 지역주민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폰 스쿨',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안심마을에 찾아온 스마트한 돌봄 이야기'를 치매보듬마을 3개소 대상으로 운영해 온 결과를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모사업에는 사회 참여 분야에서 치매보듬마을(금성면 탐리2리·봉양면 삼산리·비안면 서부리) 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 돌봄 및 각종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랑의 공동체 조성 △전문 외부 강사를 연계한 건강 및 운동 프로그램 △치유농장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사업을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과 연계해 치매환자·치매고위험군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최다선정 쾌거

의성군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 공모사업에서 신규 주민사업체 6곳으로 전국 최다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최대 5년간 국비 6억여원을 확보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4월 15~5월 2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는 전국 주민사업체 151곳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지난 31일에 24개 지역 최종 52곳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했다.

의성군 지역의 선정 업체는 ㈜의성문화사, 레스큐 협동조합 등 총 6곳이다. 선정된 업체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 체험형 관광상품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관광 활성화에 적극 힘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각각 최대 5년간 1억 1000만원 이내에서 교육, 견학, 상담, 시험 사업, 법률·세무 등 주민사업체 경영 여건에 따라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년간의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민사업체가 발굴·육성, 지역관광을 이끄는 주민주도형 관광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살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

지표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넘치는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과 배움이 함께하는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다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

황성동 자율방범대, 환경정비

황성동 자율방범대, 재난안전보안관 및 여성자율방범대가 황성동 지역 내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했다. 단체는 지역 내 임시주차장 및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꽂초, 병, 캔 등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 주변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이유일 자율방범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

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황성동을 만들기 위해 성심성의껏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하 황성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힘써주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경주시, '청년의 날' 청년과 함께 한 축제의 장 성황

청년들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제5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행사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봉황대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회의의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도시의원, 관련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 유공자 등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후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청년의 날' 행사는 '청룡의 해, 청년과 함께 해'를 주제로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행사 첫날 16일은 봉황대 뮤직스퀘어 공연으로 채워졌고, 이튿날인 17일은 오후 6시 기념식에 이어 청년밴드 및 초청가수 공연이 열

렸다. 기념식에는 청년 유공자 5명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청년의 꿈을 담은 퍼포먼스(종이비행기), 행사장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봉황대 뮤직스퀘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청년 도깨비 데이와 협업한 행사도 함께 열리면서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지역 청년들이 주체가 돼 이들이 직접 기획한 청년창업가 팝업존, 청년 예술가 전시회, 청년 플라마켓, 청년점포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경주시 청년정책 홍보 부스, 원자력환경공단 홍보 부스, 전통놀이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경주청년회의소의 후원 경품추첨은 행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주낙영 시장은 "청년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향후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들의 역량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해 9월 경주 중앙시장을 찾아 추석장을 보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있다.

'봄날, 벚꽃 그리고 천년의 아름다운 밤' 대상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사적지 사진 공모전 결과 발표 15점 선정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마련한 경주 사적지 사진 공모전에서 '봄날, 벚꽃 그리고 천년의 아름다운 밤'이 대상을 차지했다.

경주 사적지 사진 공모전은 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 6월 3~28일까지 26일간 진행됐다. 공모에 총 49명이 참여, 111점이 접수됐다.

1차 심사를 거쳐 예선 통과한 70점을 대상으로 주제의 표현·독창·작품·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점(점수를 각각 나눠 배정)했다. 외부 사진작가의 전문 심사, 공단 직

원 투표를 통한 가산점 등을 반영, 최종 15점을 선정했다. 이 결과 대상은 '봄날, 벚꽃 그리고 천년의 아름다운 밤'이 차지했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8점으로 총 15점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수상작 7점은 새달 1~22일까지 3주간 신라고분정보센터에서 전시회를 연다.

정태룡 이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적지 사진 공모전을 통해 경주 문화유적의 가치와 소중함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공단은 이용객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단 누리집(http://www.gjfm.or.kr)에 게재, 향후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홍보자료에 활용한다.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최대 500만원지원 푸드테크 도입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대대적 개선

경주시의 '2024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이 순항 중이다.

사업은 지역 음식점 위생 수준과 서비스 질을 높여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참여자 모집을 통해 일반·휴게음식점 75곳을 선정했으며, 영업기간이 오래된 음식점을 우선 선정했다.

식당 1곳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며 20%는 자부담이다.

지난해 최대 지원액 150만원 대비 대폭 확대된 금액이다. 또 지난해까지 제한을 뒀던 영업장 면적 제한을 없애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

시는 예산 3억원(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일반·휴게음식점 업주들에게 지원되는 부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주방 및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환기시설, 주방기기 등의 도색, 교체, 청소, 개보수 등 청결서비스 개선 부문에 지원한다.

다른 부문은 서빙로봇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바닥 장애물 제거,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진입경사로와 손잡이 설치 등의 미래지향적 편의서비스 제공 등이다.

현재까지 75곳 중 30곳에 대해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며, 나머지 45곳은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음식점의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업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주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상권 활성화 매진

황남상가시장 첫걸음 중앙시장 디지털 전환

경주시의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순항 중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공모 사업'에서 황남상가시장이 첫걸음기반조성사업(2억원)에, 중앙시장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1억 8000만원)에 각각 선정됐다.

황남상가시장이 선정된 '첫걸음기반조성사

업'은 발전 가능성 높은 시장을 선별해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황남상가시장의 '특성화 시장'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으로 결제 편의 증대 △가격·원산지 표시판 설치 통한 고객 신뢰 △고객별편요소 제거 △안전관리 △상인조직 교육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 연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시장이 선정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문자 그대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자생

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 지원이다.

시는 중앙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진출을 위한 시장 특화상품 개발 △공동 작업장 조성을 통한 배송 인프라 구축 △온라인 플랫폼 입점 △협동조합 설립 등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 연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전통시장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상인들의 소득도 함께 올라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순환 운영체계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무단 이탈률 0% 성과거뒀

경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화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5~8일까지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감봉짬 주를 방문했다.

방문은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선진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시범농장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먼저 국제교육 NGO 나눔재단 월드채널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 학교에서 '프놈펜 한국어 교육센터' 개원식을 갖고 한국어 교

육을 위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을 시작했다. 월드채널 교육장을 방문, 고용주 현지 직접 면접을 통한 맞춤형 계절 근로자 선발을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과 감봉짬 주에 있는 농가를 방문해 양상추 등의 염채류, 토마토 등의 과채류 등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했다.

이정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이야말로 지역 농가 근로 능력 향상의 절대적 요소다. 전국 최초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해 모든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 전 해당 과정을 이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이래 무단 이탈률 0%, 농가 수요 인원 100% 입



경주시 방문단이 캄보디아 선진농업 기술전수 시범농장을 방문해 현지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 성실 근로자 재입국률 60%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법무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 청년 창업 붐 일으킨다!

우수 창업 아이템 가진 청년 최대 3500만 지원

경주시가 '청년 신골목 창업특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황오동 재생구역 내 우수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첫 발을 때 올해도 3회째를 맞는 이 사업은 경주시 주최,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후원, 위탁대학교 산학협력단(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새 달 1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경주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개인 또는 팀)이다.

신청 방법은 경주시 청년센터 누리집(www.godo1539.com)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심사 방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2차 대면심사와 3차 PT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아카데미, 컨설팅 교육, 현장 코칭, 및 최대 3500만원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의 20% 이상은 자부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또는 청년센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청년센터(054-742-1539)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잠재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활리단길에 이어 새로운 창업 핫플레이스를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청송



영덕청소년, 대구 문화예술 만끽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일, 2024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청소년 취향 발굴단 (덕밍아웃)의 두 번째 견학을 대구로 다녀왔다고 밝혔다. 대구의 문화예술을 찾아 떠난 (덕밍아웃) 참여 청소년 16명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이월드 83타워 뮤지엄에서 전사스폰 지바의 우당탕탕 시간여행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체험을 했다.

대구 도착 당일 오전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한 학생들은 백스태이지 투어를 통해 무대 음향 조명 등 설비와 각종 기계장치를 살펴보고 오페라하우스 관계자와 함께 오페라의 역사와 관람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그림형제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관람하며 영덕에서 경험하기 힘든 대형 오페라의 감동을 만끽했다.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아델 하이즈 베테의 대본에 그의 오빠 앙겔베르트 뉘퍼링크가 곡을 붙인 동화 오페라로, 독일어 원어로 진행됐지만 감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글 자막이 제공되었다.

오페라 관람 후 참여 학생들은 이월드 83타워 뮤지엄으로 이동,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보글보글 스폰지밥'을 주제로 한 전시 (스폰지밥의 우당탕탕 시간여행)을 관람하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 이어질 <덕밍아웃>의 다음 일정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ydct.org)와 인스타그램(@ydct_official), (@love_lovely_yj)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울진 주민참여 예산학교 시행

울진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지역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군민의 적극적인 예산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제안 사업 발굴과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안내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울진군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군은 오는 8월 19일까지 주민e 참여 홈페이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제안을 접수받고 있다.



'웰니스 중심도시' 영덕군, 불교방송과 MOU 체결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 홍보 웰니스 도시 건설 및 관광사업추진

영덕군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의 적극적인 홍보와 양질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지난 14일 BBS 불교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문화관광재단 웰니스관광사업본부 이태호 본부장, BBS 불교방송 성기홍 사장 직무대리 외 11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 홍보를 위한 가치 증진 및 국내외 저변 확대 △추진사업 및 관광·문화유산의 대외 홍보를 통한 웰니스 도시 건설 및 관광사업 이미지 제고 △

방송을 통한 K명상, 한방건강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구축 및 보급 △인문힐링센터 여명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방송 제작 지원을 통한 공동 저작권 및 원천자료 공유 등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BBS 불교방송과의 상호 협력으로 웰니스사업과 이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을 신게 됐다"며, "불교가 현대인에게 치유와 안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웰니스 중심도시로 발

돋움하는 영덕군에 도약대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고래불국민아영장에서 세계 3대 치유의학인 한국의 한의학, 인도의 आयुर्वेद, 독일의 크나이프를 체험하고 최신 웰니스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를 개최한다. **조여은 기자**

포항시, '해도도시숲' 수국아카데미 열려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30년간 약 2,000톤 온실가스 감축 예상

포항시는 지난 14일 해도도시숲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4 수국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수국아카데미'는 도시숲에서 배우는 포항 GreenWay 프로젝트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가드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국을 활용한 가드닝 강연 및 현장 체험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도시숲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국의 특성, 삼수 체험,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아카데미가 열린 '해도도시숲'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해도 근린공원 잔디광장 8만 4,000㎡에 9만 6,000여 분의 나무와 꽃을 심어 울창한 숲으로 조성했다.

해도도시숲은 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 먼지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보의 역할을 하며, 향후 30년간 약 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자주 산책하는 공원인데 전문가로부터 도시숲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익숙한 공원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다"며 "도시숲의 수목에 대한 숲해설을 듣는 시간도 유익하고, 커피집에 수국삼목 체험도 해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경식 그린웨이추진과장은 "포항시가 조성하는 시민 중심 친환경 녹색도시란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도시숲에 직접 참여해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복 제79주년 맞아 울릉도·독도서 광복절 기념 행사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가 14, 15일 양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사)한국마이스진흥재단의 주최·주관 및 경상북도와 울릉군, 경상북도 체육회, 경북일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행사는 화랑의 혼이 담긴 대한민국 고유의 무예이자 국기인 태권도를 통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홍보하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강인하고 굳건한 독도 영토 수호의지를 보여주고자 열렸다.

지난 14일 울릉도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주민 및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전야제가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체육회 독도사랑스포츠포럼연단의 태권도 송관경과시범 공연과 독도 플래시몹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플래시몹과 만세삼창 진행중엔 공연단과 관광객이 한 목소리로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불러 독도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광복절인 15일에는 61명의 태권도 시범단과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이 독도땅을 밟아 태극기와 독도 깃발을 활용한 태권도 퍼포먼스와 독도 플래시몹을 펼쳐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상징 독도에서 태권도 공연



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전국민들께서도 울릉도·독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시면 독도 수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긴밀한 협력으로 통합방위 태세 강화!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포항시는 16일 포항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19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읍지연습과 연계해 '2024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부의장인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역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유사시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훈련계획 등 읍지연

행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태풍·집중호우 시 유관 기관 신속 협조 대응 체계 확보, 대드론방호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읍지연습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드론) 위협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실제 전쟁 상황을 고려한 전시 체제 편성, 행정기관 소산·이동 훈련과 포스코 및 포항항 피폭 상황을 가정한 전시 주요 현안 토의, 적 공습

대비 전 국민 참여 민방위 대피 훈련 등을 읍지연습 기간 추진한다.

이강덕 시장은 "긴장 관계에 있는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요충지로 포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읍지연습이 실질적인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안보 영역이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비군사분야로 확장되고 있기에 민·관·군·경·소방을 아우르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20회 울진군 목요특강 개최!

울진군은 오는 22일 울진왕피천공원 내 왕피천 문화관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0회 목요특강을 개최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2023년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운영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지휘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인구, 소득, 일자리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그 한계를 언급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손병복 울진군수는 특강에 앞서 "우동기 위원장님의 특강을 통해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울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울릉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공동위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후원물품 현황 및 결과보고, 공모사업 (사랑나눔실천배분사업) 현황, 2024년 특화사업 운영방안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4년 현재까지 울릉읍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된 후원 물품에 대한 지원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24년 자체 특화사업 진행사항 보고와 추진일정,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특화사업 진행을 위한 위원들의 재능기부와 후원이 이어져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최동민 민간위원장은 "관내 소외된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하여 주신 단체들과 특화사업의 진행을 위해 흔쾌히 재능기부와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 앞으로 진행될 특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윤태 울릉읍장은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는 첫 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 발굴과 행복한 울릉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제13회 성주심산문화축제 열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제13회 심산문화축제가 건강문화캠퍼스에서 열렸다.

경상북도와 성주군이 후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별고을광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100여명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심산문화축제는 '독립마블 버스투어' 프로그램이 새롭게 진행되었다. 심산기념관에서 출발하여 심산김장숙생가, 해동청풍비, 백세각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각 장소에서 게임을 즐기는 체험형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버스투어가 끝난 후 애니메이션 상영, 열림굿, 사물놀이공연, 끝드벨이 연이어 건강문화캠퍼스에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심산 김장숙 선생은 성주군 대가면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성주군에서는 심산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송모제, 경전암송대회, 추모식등을 개최하며 심산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도재훈 기자**



영천 경찰청장기 태권도대회 열려

2024년 경찰청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및 무도대회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3곳(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 최무선관)에서 개최된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북태권도협회와 영천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초·중·고등부, 일반부 총 2,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한 판승부를 펼친다.

영천에서 개최된 지 3회째를 맞이해, 이번 대회에는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 생활체육관에서 가상 세계에 상대방과 겨루는 KTA 버츄얼 태권도 켈리지 시리즈가 진행되며, 23일부터 24일까지는 최무선관에서 경찰청 경력경쟁재용시험인 무도대회가 진행돼 경찰의 꿈을 키우는 태권도 선수들 간의 한판 승부가 이뤄진다.

전국단체대항태권도 경기는 초·중·고등부 10~11개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 방식으로 진행돼 순위를 가리며, 체급별 메달 집계를 통해 각 부별 1,2,3위 팀에게는 단체 시상도 이뤄진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참가한 선수들이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이 대회를 통해 꿈을 키워 멋진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최은하 기자**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다!

도미니카공화국·온두라스 초청연수단 청도군 방문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으로 초청한 도미니카공화국·온두라스 연수단 일행 40여 명이 16일 새마을운동발상지인 청도군을 방문했다.

연수단 일행은 오전 청도군청을 방문하여 김하수 청도군수와 간담회를 가진 후 청도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을 방문했다.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서 연수단 일행은 새마을운동의 생생한 활동을 눈으로 직접 보

면서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배우며, 한국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군의 문화적 유산과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해외 연수단을 통해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7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MOU를 체결하고 2022년부터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온두라스는

2019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자국 내 새로운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세계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에델린 타베라스 콘트레라스 도미니카공화국 경제기획개발부 남북협력추진과장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청도를 직접 방문하게 돼 영광이다. 새마을정신을 비롯해 화랑정신 등 정신문화의 성지 청도에서의 경험을 본국에 돌아가서 적극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온두라스 중앙정부 관계자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전경에 한번 놀라고 그 규모와 시설에 한번 더 놀랐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새마을운

동발상지 청도의 새마을 사업을 적극 벤치마킹해 잘사는 온두라스를 건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온두라스 초청 연수단 일행을 청도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을 이룬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사회에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산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모집

경산시는 8월 19일부터 '204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과 함께 경산의 미래상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후를 목표로 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 교통, 환경, 주택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과 계획이 포함되며, 향후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시민참여단은 도시·주택/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교육·복지, 환경/안전의 4개 부과로 구성된다. 참여단은 경산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향후 생활권 계획,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며, 2040년 경산의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로, 19세 이상 경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민참여단은 9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과 비전은 204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병헌 (전)국회의원, 기부금 기탁

청도군 풍각면에 고향발전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고향사랑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풍각면 금곡리 출신인 임병헌 (전)국회의원은 금곡 숲공원에서 마을 주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금곡리 마을발전기금 2,0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임병헌 (전)의원은 제24대 대구광역시 남구 구청장,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담배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임병헌 (전)국회의원은 "고향 청도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고향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 기획특별전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성료

2023년 9월, 고령군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고령군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7개 지역 가야고분군이 "가야고분군"으로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대중에 널리 홍보하고자 대가야박물관에서는 2023년 10월 26일 기획특별전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개막하여 지난 8월 4일에 종료하였다.

약 9개월의 기간동안 9만 명의 관람객들이 기획특별전을 관람하였다.

특별전시를 통해 지산동 고분군의 특징, 우수성,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인한 관람객들은 산위에 위치해 있는 지산동 고분군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 궁금해하셨다는 관람객부터, "가까이 이런 유적이



있는지 몰랐다"를 시작으로, "이 작은 도시에 아주 큰 유적이 있네요.", "주차하고 박물관 입구로 올라오는데 그 광경이 그림같다.", "1,500~1,600년 전의 유적이네 어떻게 이렇게 잘 남아있어?!", "대가야사람들은 어떻게 산위에 저런 큰 무덤을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등의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대가야박물관의 전시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가까운 시일에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이번 대가야박물관의 기획전시와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알리는데 큰역



할을 하였다"라며, "대가야박물관 기획특별전은 종료되었지만, 고향박물관과 계명대학교 한스 박물관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가야박물관은 다음 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과 함께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음〉을 준비중이다.

9월 26일 개막하여 12월 15일까지 전시한다. 9기간동안 세계유산 축전과 더불어 전시와 연계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배영백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 간담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지난 14일 경산·영천·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상봉 소장과 총괄팀장, 고용보험과 팀장, 영천고용복지센터 팀장,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과 팀장, 직업능력개발과 팀장 등 총 6명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로봇캠퍼스 소개와 학생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최무영 로봇캠퍼스 학장은 "앞으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학생들의 구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린데이'주간 '별빛두레' 행사 개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물놀이장 무료 개방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그린데이' 주간을 맞아 지난 14일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에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상생을 위한 '별빛두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휴가를 맞아 관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을 비롯한 초등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어린이 물놀이장 무료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사회적 책임(CSR)과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실시했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분리배출 상식 게임과 페트병으로 물총 만들기 활동이 포함돼 있으며, 산책로를 거닐며 산림욕을 즐기고 환경을 지키는 '숲따라쫓김, 숲살리기' 환경 정화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어린이 물놀이장을 이용한 물총놀이 활동이 마련돼 참여 아동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단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이 자연과 함께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교육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은하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칠곡



문경 814 영강페스타 성료

문경시에서 주최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문경지회에서 주관한 문경 814 영강페스타 축제가 14일 영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시민과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김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식전행사에 장근수 밴드, 이문새(모창가수), 판소리제작소 '소리담기', 문경시립합창단, 남궁옥분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개막식에서는 문경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모두 함께 염원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져 뜻깊은 자리로 되었으며,

식후행사는 U&US 남성4중창단, 문경 제2회 트롯가요제 우승자 윤진우, 문경시립무용단, 레트로의 대표 가수 변진섭, 해은이가 출연해 공연을 풍부하게 꾸며주었다.

화려한 공연과 아울러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부대행사로 문경을 찾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문경의 대표 이미지로 구성된 문화경치 드론라이프쇼가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박희엽 지회장은 "휴가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구성했다"며 "한여름밤에 지친 시민들에게 더위를 식히고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평생교육원, 정기강좌

김천시평생교육원에서는 「2024년 제2기 평생교육 정기강좌」를 12일부터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차례대로 개강했다.

이번 제2기 정기강좌는 태극권, 꽃차소믈리에자격증 등 34개 과목, 715명이 수강 신청 완료하여 8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주간 운영된다.

특히, 4주간의 재정비 기간 동안 강의실 정비 등 환경개선을 통해 수강생 편의를 도모하고, 신규 수강생과 장애인 132명, 정원의 18%를 우선 모집하여 신규 학습자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평생교육원은 수강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원 로비에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미경 교육원장은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혁신의 엔진 가동 '첨단 산업 가속화'

첨단산업국, 세 개 부서로 구성 신산업정책과·반도체방산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구미시가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혁신도 혁신'이라는 구호 아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가운데,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첨단산업국이 또 하나의 혁신에 나섰다.

첨단산업국은 세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신산업정책과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반도체방산과는 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방산, 차세대 모빌리티 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략산업과는 신성장동력 산업과 주력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로봇, 이차전지, 첨단소재부품, 에너지 분야를 관리하고 있다.

첨단산업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점검해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신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기반 구축비 등 1,252억(국도비 포함 시 2,039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구미 상륙

구미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오는 8월 24일 「2024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는 '찾아가는 단편유랑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폐막된 2024년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주요 수상작 4편을 선보인다.

상영작 4편은 국제경쟁부문 <엔리코의 생일(감독 프란체스코 소사이, 최우수작품상)>, 아케론강(감독 마누엘 무뇨스 리바스, 우수작품상), 한국경쟁부문 <내 어머니 이야기(감독 김소영·장민희, 최우수작품상)>, <여름방학(감독 김민성, 우수작품상)>이다.

'찾아가는 단편유랑단'은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이사장 차민철)가 주관하여 매년 우수한 단편영화를 소개하고자 당해연도 수상작을 전국에 순회상영하고 있다.

올해는 구미영상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11개의 도시에서 총 13차례 상영한다.

한편, 구미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말연영회' 상영회를 통해 독립 및 예술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송명주 기자

상주시민체전 준비회의 개최

화남면에서는 8월 13일 19시 화남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화남면 체육회 회원 및 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상주시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영수 화남면 체육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회 종목별 감독·코치·담당공무원 구성 및 출전 선수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연습 일정 등 의견을 나누며 행사 준비에 나섰다.

또한, 2024년 상주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입장식 퍼포먼스, 경기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화남면 체육발전과 시민체육대회를 즐거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천시, 제1회 김천김밥쿠킹(COOK-KING)대회 열어

김천시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촉진과 지역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제1회 김천김밥쿠킹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4 김천김밥축제」 컬러 콘텐츠로 김천 농특산물을 활용해 김밥을 만들어 경연하는 이색적이고 재밌는 이벤트이다.

「제1회 김천김밥쿠킹 대회」는 김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 선발 및 시상은 1차 전문가 서투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10팀(1팀 2명 구성)을 선발하고, 본선에 오른 10팀은 오는 김천김밥축제에서 현장 경연을 통해 전문가 평가(40%)와 현장 참가자 평가(60%)하여 금상·은상·동상 각 1팀과 참가자 7팀이 선정된다. 금상·은상·동상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금상 2백만원, 은상 1백 5십만원, 동상 1백만원 시상금이 수여되며, 참가상은 상장과 시상금 50만원 수여된다. 이경호 기자

을 점검해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신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기반 구축비 등 1,252억(국도비 포함 시 2,039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총 16개 사업에 43.7억을 추가로 확보한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키워드는 제조기술 혁신 기반 구축,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로봇산업 육성 동력 확보이며, 주요 사업들은 첨단산업국이 헤쳐 나가야 할 업무의 단편을 엮을 수 있다.

신산업정책과는 초거대 AI 클라우드 및 실증확산 환경 조성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산학협력형 인재양성 등 10개 사업에 23.2억을 편성했다.

특히 「초거대 AI 클라우드 및 실증확산 환경 조성 사업」은 초거대 AI를 활용하여 방위산업 제조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231억 규모로 추진한다. 이번 추경에서 2024년 사업

비의 도비·시비 부담액인 7.4억을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2.7억을 증액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MES, EMS(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현장 맞춤형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제공하여 산단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이 구미시와 함께 공모에 도전하여 선정된 산학협력형 지원사업 4건의 지방자치단체 매칭비 3.1억 원을 편성하였다.

반도체방산과는 지난해 방산혁신 클러스터, 반도체 소재·부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여세를 몰아, 방위산업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5억을 편성

했다. 또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설비 구축, 설비 증설, 검사장비 개선 등 설비고도화 및 최적화를 지원하는 방위사업정사업의 국비확보액을 반영하였다.

전략산업과는 지역 특화 첨단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그램, 로봇기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첨단로봇 플래그십 사업(총 사업비 9.1억)」의 시비 부담분 3.2억 원 편성하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 8기 들어서 구미에 '남만'이라는 이미지를 입히고 있지만, 구미를 지방하는 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첨단산업국 신설도 이러한 이유"라고 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 정책 및 지역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첨단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명주 기자



상주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지역 주민과 소통

상주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훈련장을 포함한 군부대 이전 후보지인 외서면, 남원동, 화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다.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그간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경과 △국방부가 요구한 (가칭)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 현황과 후보지 위치 △향후 평가 진행 절차 등이며, 그 외에도 이전 대상 부대, 부대이

전 후보지 현황, 기대효과 등도 함께 설명하였다.

이후 훈련장 구축 제원과 세부 현황, 이전 시기, 지역발전 대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날 직접 설명에 나선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의 군부대 이전 후보지는 연원동과 외서면 봉강리 일부 지역이며, 민군상생복합타운은 상

주도심과 연결한 연원동 낙양동 일대이다. (가칭) 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 후보지는 외서면과 화서면 일원이다.

향후 5개 자치단체 후보지에 대해 국방부가 임무수행 가능성과 정주환경을 평가 후 복수의 예비후보지를 9월에 대구시로 통보하면 대구시가 주민 수용성과 사업성을 평가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구미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2년 연속 인증 획득

구미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전문 평가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관리 체계 및 국제사회의 인권경영 요구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2023년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노사공동 상호존중 선언식, 상호존중의 날 도입 등 인권 존중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확대 및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도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구미도시공사 이재용 사장은 "인권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2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만큼 꾸준



한 고도화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와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 현안 논의

국민의힘 정희용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4일(수),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을 만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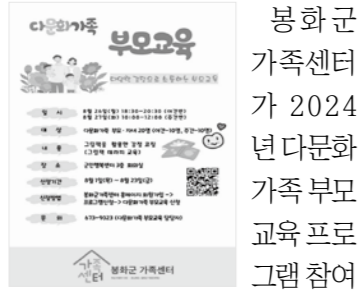
이날 면담에서 정희용 의원은 3개 군의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과 배수개선 사업 관련 신규 착수 지구 선정을 건의하고, ▲양봉바이오투차유 산업 혁신밸리 조성사업과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

부는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희용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수 개선사업과 농촌용수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면서, "폭우 등으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다양한 배수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사전에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촌용수가 농경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의성 영양

봉화군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봉화군 가족센터가 2024년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관내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20명을 대상(야간반 10명, 주간반 10명)으로 오는 26일과 27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문제 및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림책을 활용한 감정교정으로 부모와 자녀의 다양한 감정을 알아보고 올바른 감정발산법과 표현법을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봉화군 가족센터 누리집(http://bonghwa.family.net.or.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송갑순 봉화군가족센터장은 "이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모·자녀들 간의 상호 교감과 유대감 형성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예천군 풍물축제 인파 이어져

예천군의 대표 축제인 "2024 예천군 풍물축제"가 큰 인기를 끌며 주말 관람객의 발길이 계속됐다.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곤충생태원에서 인플루언서와 곤충 친구들을 만나고, 한천체육공원에서 벅스 물놀이장과 수상체험, 공연을 즐기며 각기 다른 매력으로 더위를 식히려는 관람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곤충생태원 메인무대에서는 인기 유튜버 정브르가 출연해 자연과 곤충을 주제로 어린이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호박벌존에서는 코니페타탐험대가 특별한 경험을 전했다.

축제 내내 가수들의 공연이 한천체육공원 메인무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저녁은 어른들을 위한 무대로 홍성원, 권연서, 오혜빈의 특별공연이 흥을 돋우고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민호의 공연으로 여름밤 대미를 장식하며 셋째 날을 마무리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더운 날씨에도 축제를 즐기기를 위해 찾아주시는 관람객과 멋진 에어쇼를 보여준 대한민국 공군에게 감사드린다."며 "2024 예천군 풍물축제를 18일 마지막 날까지 충분히 즐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불거리와 즐길거리로 방문객들을 만족시키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영양고추 H·O·T Festival 준비 막바지 비지땀

올 추석 선물은 영양고추로... 여름의 끝에서 가을 시작까지

영양군이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 준비에 불철비처로 애쓰고 있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무더위가 채가시기 전에 올해 출하 약정을 체결한 고추의 수매사업이 한창이다.

고추 수확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영양고추유통공사가 고추 재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양질의 홍고추 수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보다 당겨진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 일정으로 농촌에서도 뜨거운 여름의 마무리를 맞이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집약적 농업구조(고추, 엽채류 등) 특성상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바쁜 시기에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번기 인건비 상승 억제에 큰 기여가 된다.

농민들이 아낌없는 포기하며 가져다준 홍고추

를 품질검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간다.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 수매, 건조, 가공, 포장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영양고추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번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의 핵심이 된다.

외관은 윤기가 많이 나고 반들반들하며, 과피가 두꺼워 건조 시 색택이 약간 검붉으나 가루가 많고, 단맛과 매운맛이 잘 조화되어 매콤 달콤하고, 고추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것이 영양고추의 특징이다.

이번 추석선물은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에서 만난 품질 좋은 영양고추는 어떻게? 제안해 본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마케팅 행사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시 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금년에도 영양고추의 옹고 정직한 맛을 제대로 전하고 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수도권을 사로잡을 것이며, 불필요한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농특산물 판매와 다양한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햇살 아래 가장 청정한 영양군에서 농부의 땀과 정성 들어 키운 햇고추를 '2024 영양고추 H.O.T Festival'에서 만날 수 있다.

권윤동 기자



영주시, '일단위'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비... 농가 인건비 부담 완화 기대

영주시가 '일단위'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시는 16일 베트남 타이빈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안정농협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는 지역 농협을 통해 단기로 인력을 쓰는 제도다.

근로자들이 공동숙식시설에 체류해 농가가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다.

특히 1일 단위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어 소규모 영세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베트남 타이빈성과 올해 초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 유치에 위한 부속합의서 개정 및 일정 조율을 마쳤다.

이러 지난 6월 실무단을 현지에서 파견해 영농테스트, 심층면접, 현지교육 등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서 근무할 30명의 근로자 선발 및 비자발급을 마무리했다.

또 안정농협과 함께 공동숙식 시설인 효마루 농촌체험휴양마을(대표 안우석, 안정면 용상리)에 방문해 계절근로센터 근로자들이 3개월간 사

용하며 불편이 없도록 숙소와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 농가 이용료는 일당 10만 원으로 '하루 단위'로 인력을 신청해 쓸 수 있다. 근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게 오후 12시~2시), 연장 근로 시 시간당 약 1만 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이는 인근 지역의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으로 시는 농가의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계절근로자 직접 고용이 어려운 농가와 작목 특성상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 등 다양한 농가 수요를 충족해 줄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센터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11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안정농협(☎054-638-1724~5)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취소

7월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동시는, 지난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2024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됐던 을지연습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한다. 오는 22일 오후 예정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민방위 경보 사이렌 발령·시민 대피훈련·차량통제 등을 생략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달 있었던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을 되찾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라며 "을지연습 기간인 만큼 비상대피요령·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명주 기자

봉화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모집

봉화군은 오는 9월 6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군이 보조한다.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경작 농업인, 임업인, 수산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작물 피해를 줄이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베트남 다낭시 방문... 관광·농업 분야 협력 강화

한국-베트남 축제 참가 봉화군 홍보부스 운영

봉화군 우호교류단이 베트남 다낭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다낭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다낭시의 당서기 등 다낭 대표단이 봉화군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양 도시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봉화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 다낭시 한국-베트남 축제에 참가해 봉화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다낭시 한국-베트남 축제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베트남과 한국 간의 문화적 유대를 기념하고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홍보 전시관 운영, 태권도 공연, 한국 전통악기 및 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봉화군은 베트남 독립 왕조인 리 왕조의 후손과 유적지가 위치한 유일한 곳을 알리는 동시에, 리 왕조와 관련된 K-베트남벨리 조성 사업, 봉화 읍·송이축제 등 지역 축제와 농·특산물을 소개했다.

이번 축제에는 봉화군 외에도 의정부시, 구례군, 경북도, 제주도 등 여러 지자체들이 참가했으며, 이번 축제 참가를 통해 봉화군은 베트남 시장에서



의 인지도를 높이고, 양국 간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봉화군은 지난 16일 다낭시청을 방문해 응웬 반 광 다낭 당서기장과 환담을 갖고,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다낭시는 봉화군에 앞으로도 정기적인 축제 참여를 요청하며, 두 도시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7일에는 지난 7월 봉화군을 방문했던 다낭시 두이탄대학교를 방문해 두이탄대학 교수들과 함께 'K-베트남벨리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며 해당 사업의 중요성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봉화군은 지리적 환경이 유사한 다낭시 호야방현을 방문해 계절 노동자 및 농업 기술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의 상호 협력 및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물론, 이러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양 지역 간 농업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시행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35개 사업장에 70명 근무

안동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난 해소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19일부터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11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참여를 희망한 약 360명 중, 가구소득 및 재산 등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70명을 최종 선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부	053-267-09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8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200025 대여금
○원 고 : 주식회사 태왕이앤씨
○피 고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 외 9인
○탄 원 인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2024년 8월 일

탄원인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일동

서명날인 연명부(덧면 첨부)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귀중

탄원서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200025 대여금
원고 : 주식회사 태왕이앤씨
피고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 외 9인

탄원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외 조합원입니다.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이 되어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지역의 유력한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태왕이앤씨(대표이사 노기원)가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무도하고 악랄한 행태에 대하여 지금까지 겪어온 통탄할 일들을 사실 그대로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조합원 모두 피 끓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추진 과정】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743-2번지 일원 9,921.7㎡(3,001.3평)의 토지와 69개 동수의 노후화가 심각한 단독주택 및 상가 점포 등 건축물을 존치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인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봉덕 재래시장과 남구청 사이에 끼어있는 소규모 주택지로서 인근의 봉덕1,2,3동과 이천동, 대봉동 등지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노후 주택단지 재개발 정비 사업지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던 차 주거문화가 아파트 문화로 급속하게 바뀌어 노후된 단독 주택지의 빈집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 빈집과 소규모 노후 불량한 주택단지를 신속하게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2017년 2월8일 입법 공포하였고 2018년 2월 8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로소 당해 구역의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된 이후의 우리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일체 합심하여 대구 반월당 일원과 인근 이천동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 시행의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동흥건설(대표 고흥무)를 공동사업자로 공동시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자의 동의를 걷기 접수하여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시켜 마침내 2021. 3. 23 일자 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2021. 3. 24 일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 법에 정한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시공회사(주태왕이앤씨)와의 관계】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라는 조합 이름으로 사

업을 시작하게 된 사유는 공동 시행사(주동흥건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구역 단지의 명칭이었고 소규모아파트 단지를 함께 동일체로 묶음으로서 규모의 확장성과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조합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빈집법”이라 표시하겠습니다. 조합의 설립 이후 사업추진의 능력이 있는 우량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주태왕 이앤씨 (대표자 노기원)이 자연스레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조합의 처지에서는 지역의 유력한 아파트건설업체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건설업체인자라 법에 정하여진 대로 시공회사 선정 절차를 거쳐 2021.7.15일 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인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은 공동 시행사 동흥건설, 시공사 태왕이앤씨, 건축설계업체 더반, 정비업체 동산두오래 등 협력업체와 정비사업의 건축심의 등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주례 협력업체 회의를 거쳐 중요 현안 내용에 대하여 상호 공유하며 사업추진을 진행 한 결과 비교적 짧은 기간인 2022. 2. 8일자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건축심의와 통과한 이후 조합은 대구지역의 수많은 정비사업 구역과 민영사업의 신규 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져나옴으로 서서히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건설공사 인건비가 급상승함으로 조합은 빠른 공사 시작과 일반분양을 앞당겨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해지고 있는데 시공사는 2023. 2. 16 일자 발송 문서를 통하여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정비사업에 태왕이 대어한 대여금의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기에 당 조합은 2021. 7.10일부터 2023. 1.10일까지의 사용 집행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시공회사(주태왕)의 변심 과정】

정비사업비의 사용내역의 자료를 시공사 태왕에 제공한 이후 시공사에서는 2023. 3.15일자 발송 문서를 통하여 대여금 집행의 대부분 금액을 공동 시행사인(주동흥건설)에 이익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며 조합과 동흥건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하라고 강압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조합은 공동 시행사(주동흥건설)와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거 용역 수행 시기를 정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태왕은 시공사 참여 이전부터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미리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 시행사에 사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조합에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모종의 계책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시공사태왕은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미분양이 속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건설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함으로 계약된 공사금액 3.3㎡당 @4,750,000원 (철거 비용 제외)으로는 공사를 완성할 수 없고, 소규모의 사업 단지라 일반분양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공사도급계약을 조합 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계약을 해제할 요량으로 조합 측의 책임소재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부터 5개월이 경과 될 시점까지 잠잠하기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정비사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던 차 2023. 8. 4일자 발송 문서를 통하여 공동시행자의 사업 시행 대가를 조합 목적사업 시행 이전에 지급한 사실을 경합한 적이 없다. 라며 조합의 잘못된 사업비 집행 여파로 내부자금 부족으로 조합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되었다. 라며 공동 시행사(주동흥건설)와 관련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여 ₩854,701,500원의 회수 조치를 즉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합과 시공사 태왕과 체결된 2021. 7. 15일자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조합의 조합장과 계약의 연대보증인과(주동흥건설)를 상대로 기지급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 라는 협박의 내용증명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23. 8. 31일자, 2023. 9. 22일자 같은 취지의 내용 증명문서를 보내왔으며 금기가 2023. 12. 31일자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24. 1. 15일자 가압류 결정을 기어이 받아내 정비사업의 동반자인 조합과 평범한 토지소유자인 조합 임원을 상대로 치료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기며 천추의 한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구지역의 유력한 주택건설업체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태왕은 평범한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는 아무 죄없이 태왕이라는 그 회사만을 믿고 아파트 잘 지어달라고 토지를 내어주고 각종 동의를 조건 없이 협조해 준 이웃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험신짝 차버리듯 배신하며 공사를 진행하면 손해가 볼 것이 뻔하고 분양이 안 되어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게 될까 봐 갖은 이유를 짜내고 짜맞추어 조합과 이웃 주민을 괴롭히기려는 태왕의 숨겨진 술책에 조합원 모두는 분개하고 치를 떨며 분노합니다.

【시공사(주태왕) 주장의 허구성】

시공사 태왕은 조합의 공동 시행사(주동흥건설)이 공동 시행 대가 사업이익을 목적사업 종료 이전에 수익해 갔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입찰 참여 제안서

상의 사업비 대여 조건을 위반하였고, 조합이 시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공동 시행계약을 하였다느니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하였다느니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태왕은 사업 참여 이전부터 공동 시행 사업의 계약 내용, 진행 과정에 대하여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입찰 제안하였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공동 시행 방법의 사업추진은 조합과(주동흥건설)이 태왕의 시공사 참여 이전 단계에 조합이 결성된 직후 계약된 사항으로 시공사 태왕이 주장하는 사전동의 유효하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와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공동 시행사인(주동흥건설)에 의하여 공동시행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초기에 정비사업 조합 또는 신탁회사 등에게 지정 위탁개발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본 사업 단지는 비용적 측면에서 공동 시행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신탁방식의 수수료 지급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동 시행계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었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공동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주동흥건설)과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10,000㎡ 이하)의 노후된 주택단지 구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다 소규모 노후주택 단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절차와 과정이 줄어든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공동 시행사는 초기 단계에서 까다로운 조합설립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정비사업구역내 소유자의 4/5(80%)동의를, 사업 부지면적의 4/5(80%)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조합이 조합의 설립이 정비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되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 할 수 있기에 공동시행자는 조합결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관한 업무가 최대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선정 업무, 건축심의에 관한 업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계획 수립 포함) 업무, 이주 관련 업무, 준공입주 및 이전 고시, 보존등기, 해산, 청산 시까지 행정업무 협조를 진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그 업무강도에 따라 용역비의 비율이 각각 정하여져 있습니다.

시공사 태왕은 조합이 공동 시행사(주동흥건설)에 대여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여 내부자금의 부족으로 조합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며 조합이 계약 행위의 위반으로 공사도급계약은 2023. 3. 24일자 문서에 의해 2023. 4. 7일 해지 또는 해제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은 시공자 태왕이 계약해제 통보를 한 2023. 3. 24일경에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의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중요한 사건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사의 계속 조합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제반의 정비사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 허가 업무의 행정적인 대미를 장식하는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으며 2023. 12. 27일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등 정비사업 진행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마무리되었기에 시공사 태왕이 주장하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며 계속 사업 진행 시 미분양 발생 우려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시공사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선풍한 조합과 조합원을 사지로 내몰고 그들은 빠져나가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합은 시공사 태왕에서 주장하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예견되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 주장을 내세워 조합과 조합원을 겁박하고 위협하며 실제 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태왕)의 터무니없는 가압류 조치로 정비사업이 잘되지만 학수고대하며 임원으로 참여한 선량한 조합원님은 그 충격의 여파로 지병이 재발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려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건물 임대료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또 다른 소유자님은 그 수입이 단절되어 생계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임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불가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 등 급진적으로 쪼들리고 시달려 도저히 탈출할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지옥 속에 죽음을 실감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대구지역의 내로라하는 유력한 건설업체인 태왕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우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상대로 자행한 무도한 행태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하루빨리 잘못 처분된 가압류 조치를 해소해 주시기를 앞드려 부탁드립니다 잘못 선택된 길을 가고 있는 시공사 태왕을 엄중히 꾸짖어 바로 세워 주시기를 전체 조합원의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 호소드리며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2024. 8.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일동

Five columns of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likely representing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etitioners.